



# “동자석 무속·도교·불교 습합된 기념물 조각”

김유정 제주문화연구소장 '제주도 동자석 연구' 발간 김만일 동자석 최초로 추정 도굴 탓에 사진으로만 남아 파격·해학미 현실 극복 의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동자석인 김만일 묘 동자석. 김유정 소장이 촬영한 사진으로 재차 도굴되면서 현재로서는 행방을 알 길이 없다.

어느덧 30년이다. 그가 동자석의 가치를 드러내고 여론화시켰던 시간이다. 2001년 제주도문화재단에서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전시를 열었고 2003년엔 등명의 단행본을 묶었다. 당시 그는 이미 10년 전부터 동자석을 필름 카메라에 담아왔고 그 일부를 세상 밖으로 꺼낸 거였다. 2012년에는 '제주도 동자석 연구' 논문으로 예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술평론가인 김유정 제주문화연구소장이다.

그가 이번엔 '화산섬 무덤의 꼬마 석상'이란 부제를 단 '제주도 동자석 연구' (제주문화연구소 펴냄)를 냈다. 전작을 대폭 보완한 것이자 동자석 연구의 중간보고서 성격을 띠는 책자로 기물(지물), 문석인(문인석), 아옹암(옹암석) 등 용어를 다듬고 지

난 발표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그의 동자석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서 시작된다. 왜 죽은 자의 무덤에 천진한 아이의 모습을 세웠을까. 형태론적으로 볼 때 육지 동자석은 다 자란 아이지만, 제주 동자석은 그대로 어린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는 제주도 동자석이 죽은 조상을 위해 정성을 가지고 효도하고자 한 섬 사람들의 의례용 조각이면서 유교 사상과 대립하는 무속, 도교,

불교 사상이 습합된 기념물 조각이라고 했다. 노장사상에서 동자는 신선을 보필하는 심부름꾼이다. 불교에서는 보살의 보필자라는 상징이 있다. 유교에서는 선비의 잔심부름을 하는 도우미다. 무속에서는 악귀를 쫓는 역할을 한다. 제주 사람들이 현실적 어려움에도 조상숭배에 몰두한 배경엔 어려운 섬의 경제적 여건이 작용했다고 본다. 생계에 위협을 받다보니 그런 세

계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유토피아를 반영한 민중 염원의 모습이 동자석으로 구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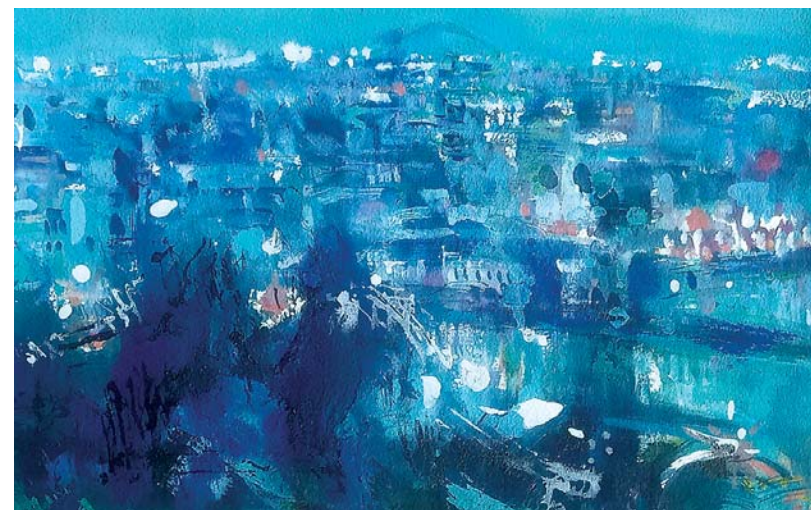
이같은 동자석에는 자연미, 단순미, 소박미, 파격미, 해학미가 있다. 특히 파격미와 해학미에는 외세의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며 자주적인 세상을 꿈꿔온 제주인의 현실 극복의 미학적 의지가 담겼다고 했다.

그럼 동자석은 언제부터 제작되었을까. 저자는 제주도 최초의 동자석으로 1632년의 현마공신 김만일 무덤의 동자석을 꼽았다. 이 동자석은 전체적으로 몸체가 둥글고 민머리이며 얼굴이 험상궂다. 하지만 제자리를 찾았던 김만일 묘의 동자석은 재차 도굴되면서 지금은 김 소장이 촬영한 사진 자료로만 남아있다.

오늘날 우리의 들녘엔 동자석의 씨가 말랐으며 안타까움을 토로한 저자는 그래서 더더욱 남은 작업을 마쳐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은 수 천장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는 그는 "동자석의 개별 연대를 밝히고 알타이 석상과의 비교 등은 보다 세밀한 준비를 위해 다음 번으로 미루겠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 갤러리ED 지상전 (5)안진희의 '점점등화'

###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불빛처럼



5년 전, 그는 우릴 '제주 바당'으로 초대했다. '점점등화(点点燈火)'란 제목 아래 펼친 개인전이었다. '점점등화'는 한밤 바다로 향한 고기잡이배들의 불빛이 물 위에 비치며 반짝이는 모습을 묘사한 말이다. "제주 바당을 그릴 때 나는 그림의 일부가 된다"고 했던 제주 안진희 작가의 '점점등화' 연작이 한라일보 1층 갤러리 이디에 놓였다. 2016년 그가 개인전을 치르던 전후에 그려진 작품들로 이번 중견 작가 초대전에는 미발표작 4점을 풀어냈다.

"자연을 사생한다는 것은 단순한 색채나 형태의 시각적 성질을 본뜨는 것이 아니라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의미나 아름다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 작가는 지난 개인전 도록에서 이같은 문장을 써놓았다. 같은 장소에서 제주 바다를 보더라도 화가의 마음에 새겨지는 빛깔은 저마다 다르다.

코로나 시국에 다시 돌아다본 안 작가의 '점점등화'는 고통의 나날을 비추는 한줄기 불빛으로 다가온다. 어둠이 땅에 내려앉을 무렵, 집집마다 등이 켜진다. 해가 뜨기 전 우릴 지켜줄 빛이다.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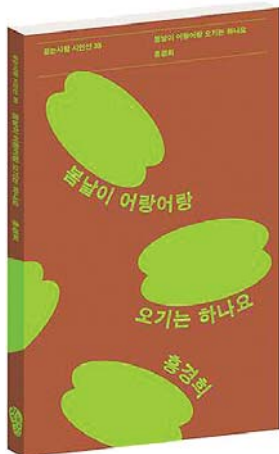
바다에서도 불처럼 채비를 한다. 뱃길을 안내할 등대불이 밝혀지면 비로소 밤바다의 시간이 시작된다. '점점등화'는 홀로 고립되어 존재하기 어려운 삶을 은유한다. 흑독한 대가를 치르며 팬데믹 상황에서 배우고 있듯이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 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없다.

안 작가는 투명한 수채 물감에 불투명의 먹물, 아크릴 등 혼합재료를 이용해 등화의 순간을 형상화했다. 사라봉 등대가 등장하는 '점점등화'의 경우엔 재료만이 아니라 여백의 미를 표현하는 등 동양화의 요소를 살렸다. 바다에 만 '점점등화'가 있는 건 아니다. 흑룡만리 검은 돌담이 있는 제주 들녘에서도 해가 진 후 '점점등화'의 장면이 나타난다.

제주대에 출강하는 안 작가는 지금까지 열두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제주도미술대전 판화 부문 대상을 두 번 받았다. 제주대 미술교육과, 성신여자대학원 판화과를 졸업했고 지난해 2월 '변시지의 회화세계 연구' 논문으로 명지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진선희기자

# 아직은 안녕이라 말 못하는 사월 숲속에서

홍경희 시인 두 번째 시집 나지막한 슬픔이 되는 이름 4.3으로, 베트남으로 확장



꽃 핀 자리에서 속물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여자가 있다. 귀인은 아직 오지 않았고, 희망을 말하기엔 이르다. 제주 홍경희 시인의 두 번째 시집 '나지막한 슬픔이 되는 이름' (걷는사람 출판사)에 그려진 풍경이다.

2003년 '제주작가'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나왔고 2010년에 첫 시집 '그리움의 원근법'을 낸 홍경희 시인과는 제주작가회의 사무국장으로 만난 날이 더 많았다. 단체 살림을 꾸리고 홍보를 맡다보니 그 직책이 더 친숙했다. 하지만 그는 시를 놓지 않고 있었다. 근래에도 성산읍의 어느 마을로 달려가 담벼락에 벽시를 남겼던 그다. "문장들은 달그려거리고, 어긋난 행간은 쉬 바로잡히지 않습

니다"고 했지만 10년 동안 다듬고 다듬어낸 시편들은 울림을 준다. '동글거나 모나거나 차별없이 쓸모 있게// 어깨를 빌려주고 숨구멍 나눈 // 토정 혈통 섬것들// 뼈와 지문들' ('제주 발담' 전문)이 시집의 기초가 아닐까 한다. 시인은 '섬것들'이 만들어온, '섬이, 섬사람들이 서로를 신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때 그때처럼' ('섬사람 이야기')이 땅에 밀려든

파고를 헤쳐온 이들에 눈길을 둔다. 그 출발지는 '귀덕'이다. 그것은 '가만히 떠올리지만 해도/ 나지막한 슬픔이 되는 이름'이고 '견딜 수 없는 반성'이 된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정신은 맑아 갈수록 품이 넓어지는 '귀덕'의 골목길 팽나무를 닮은 듯, 마을을 떠난 시인의 시선은 제주가 겪은 전대미문의 참사로, 베트남의 학살 현장으로 확장되어 간다. '이 봄에는 다녀갈까'란 장으로 묶인 시들에 그려 사연이 있다. '아무도 안녕이라/ 말 못하는 사월 숲속' ('사월에 내리는 눈')에서 시인은 '가슴에 손가락 하나 꽂고 간 그 사랑'을 떠올린다. '산전, 꽃 핀 자리'에선 '저 숲길로 떠나간 님들'을 달랜다. '꽃의 내력'엔 '스물다섯 고운 나이'를 관통한 총탄이 있었다. 시인은 '어린 때죽나무를 위한 조사'를 쓴다. '숲길을 걷는 이어/ 함부로 발자국 내리지 마라//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한 계절이 있다'고. 진선희기자

## 양순진의 제주설화 동화집 어린이 눈높이 스토리텔링

제주에서 시를 쓰는 양순진 작가가 이번엔 아이들을 위한 설화집을 내놓았다.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더 신비한 제주 설화' (책과나무 출판사)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설화동화'를 표방했다. 제주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더해진 이 책은 1만8000 신들의 고향이라는 제주의 신화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알지만 제주 신화는 잘 모르는 제주 어린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곁들여 '옛날옛날 아주 먼 옛날'부터 이 땅에 전해오는 설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수록 작품은 '거신 설문대할망과 장강수', '제주 신들의 어머니, 백주또 이야기', '영주산과 무선돌', '바농오름 흑룡의 탄생', '탐라국을 세운 삼성신 이야기', '물장오리에게 전 설문대할망 이야기', '바다의 신 영동할망 이야기' 등 17편에 이른다. 작가의 고향에서 가져온 '신도리 총견 이야기'도 담겼다. 진선희기자

## 조선대 미술패 회원 전시 부미갤러리 이달 14일까지

제주시 연동의 부미갤러리가 새해 첫 전시로 지난 1일부터 조선대 미술패 출신전을 열고 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는 이름을 단 이 전시는 1984년 창립 이래 조선대 미술패를 거쳐온 이들의 이

야기를 담았다. 엄혹한 시절의 탄압을 견디며 미술로 저항했던 그날들이 있다. 참여 회원은 16명에 이른다. 옛 사진 등 아카이브 자료로 미술패의 역사도 보여준다. 부미갤러리 송부미 관장이 미술패였던 점이 이 자리를 가능하게 했다. 전시는 이달 14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10-3782-783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영업사원 모집**

- 태양광 보조사업 영업 경력자 우대
- 태양광발전소(RPS) 영업경력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우대

▶이력서접수: 워크넷 (work.go.kr)

**🏠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